

| 교회 및 교우 소식 |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 예배시 성찬예식과 "\$1의 행복"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3. 다음 주일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온가족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김성민 목사
4. 예배 후 세례교육이 있습니다(김재영 성도, 7주차).
5. 토요 아침기도회가 이번 주 5월 11일(토) 오전 8시, 2층 Youth room에서 있습니다.
6. 이번 주중 금요기도회(온라인 Zoom)는 다음날 토요 아침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대표기도 : 5/5 박영숙 5/12 온가족예배 5/19 박현영 5/26 박효순

| 지난 주 헌금 |

주일헌금	2, 5, 15, 24, 28, 30, 32, 35, 41, 42, 44, 45, 49, 52, 53, 54, 55, 57, 60, 무명1, 어린이부3	\$667.00
십일조	3, 17, 29, 42	\$1,030.00
1달러의 행복		
감사헌금		
선교헌금		
총계		\$1,697.00

헌금 interac e-Tre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 5월 사역 안내 |

- #홈리스 사역: 5월 1, 15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 #금요기도회: 5월 24일 넷째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토요 아침기도회: 5월 11일(토) 오전 8시, 2층 Youth room
- #온가족예배: 5월 12일(주일), 설교: 김성민 목사님
- #성령강림주일: 5월 19일(주일), 설교: 장흥기 목사님(온사랑교회)
- #클로버데일 지역 연합예배(Bread We Break): 5월 26일(주일) 저녁 7시, 호프교회 본당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권해리 사모
행정: 서지민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제16권 18호 2024년 5월 5일



밴쿠버 한사랑교회
Vancouver Hansarang Church

www.hansarang.ca
18625 Fraser Hwy Surrey, B.C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오후 2시	인도 신용규 목사	
*입례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송가	새찬송가 288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영숙 집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5장 1-11절	인도자
특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Just let me say	김윤숙 집사 김윤희 집사
설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신용규 목사
성찬예식		다같이
축도		신용규 목사
광고		인도자
*파송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기도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Zoom)

이번 주에 우연히 다큐멘터리 한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적 특성을 갖춘 곳이고, 세계 5위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세계 25위권 안에 드는 대학 중 네 곳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지상 낙원으로 이주해 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30만명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부동산과 생활비 때문입니다. 비교적 고등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생활하기 버겁다고 말합니다. 또한 심각한 범죄율의 증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길거리로 밀려났고, 약탈을 일삼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교육의 문제도 범죄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비단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로 인해 삶은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주정부는 이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거를 위해 로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흥왕할 때마다 그 지역의 도덕성은 증가하고, 구제를 위한 손길은 늘어나며,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수준이 고양되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 교회 조직 |

[운영위원회]

- 유성민 장로
- 김준영 집사
- 김난형 권사

[사역위원회]

-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 행정팀장: 서지민 전도사
-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 친교팀장: 김미나 권사
-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 중보기도팀장: 한옥주 권사
- 새가족팀장: 안혜숙 권사
-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목장]

-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한사랑 Sisters]

- 회장: 김윤숙 집사
- 부회장: 임형선 집사
- 부회장: 박난주 사모

[한사랑 Dreamers]

- 회장: 오종길 집사
- 총무: 김준철 집사

[한사랑 청년부]

- 섬김이: 유진우 집사

들어가는 이야기

- 비즈니스 구인
- 스포츠팀의 신인 드래프트
-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성경 이야기

-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
-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심(눅 5:1-4)
-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물을 씻는 제자들(눅 5:2;5)
- 무리와 제자의 차이
- 무능력과 실패를 인정한 사람
- 모세의 반응(출 3-4장)
- 다윗의 반응(삼하 7:18)
- 탕자의 반응(눅 15:21)

나가는 이야기

-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
- 남자만 약 오천명(행 4:4)
- 베드로는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 베드로의 반응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말해봅시다
- 주님의 제자 선별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